

사드 해빙 체감 못하는 면세업계... “평창에 큰 기대”

유커 유입됐지만 별다른 변화 없어
보따리상 경쟁에 수익성 대폭 하락

중국의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됐지만 면세업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분위기다.

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일부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방한이 용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체들은 여전히 사드 보복 제재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난달 유커들의 다시 유입되면서 면세업계의 부활이 기대됐지만 현재 면세점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개인관광객이거나 보따리상이다.

그간 면세업계는 사드 보복 이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보따리상을 주고객으로 유치해왔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연간 매출(12조2757억원)을 넘어섰다.

예상이 빗나간 결과는 보따리상의 ‘싸늘이 쇼핑’ 효과 덕분이다. 실제로 면세



지난달 중국단체관광객들이 장충동 소재 신라면세점을 방문해 환영을 받으며 쇼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된 이후 중국단체관광객으로서 첫 입국한 관광객들이다. /호텔신라

점 업체들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펼치며 보따리상 유체에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매출은 끌어올렸지만 수익성은 크게 떨어졌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

은 지난 2분기 298억원의 영업이익자를 기록했고 신규면세점 또한 줄줄이 적자를 냈다. 연명하기 위한 ‘마진없는 장사’가 이어진 셈이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면세업계 수익성이

기대해볼만하다는 평가다.

우선 평창올림픽 개막으로 수만명의 외국인이 입국한다. 또 2월에는 중국 춘제(춘절·설)를 앞두고 선물 수요도 소폭 늘어났다. 3월 이후부터는 지난해부터 실

적이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발생한다.

이후 추운 날씨가 풀리면 여행 성수기가 찾아오고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중국 노동절도 다가온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면세점 업체들이 지난해 상반기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구조적으로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며 “사드 사태 마무리로 중국인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면세업계에서는 다가오는 춘절, 올림픽 개막 등으로 행사를 기획하고는 있지만 예년만큼 큰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대거 유입돼야 사드 해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중국 당국에서 여러가지 허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약 조건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사에서 상품을 다시 기획하고 고객을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개별 관광객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n6326@metroseoul.co.kr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왼쪽 세 번째) 및 임직원들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오른쪽 첫 번째)를 예방하고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한화건설

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탄력

최광호 대표이사·이라크 총리 면담
총리 신뢰 속 안정적 추진 발판 마련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사업이 이라크 총리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추진 발판을 마련하고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화건설은 최광호 대표이사가 지난 연말에 이라크 현지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Haider Al-Abadi) 이라크 총리를 예방하고, 면담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아바디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수행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나타냈고, 이라크 국영은행장들에게 안정적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한화건설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아바디 총리는 비스마야 신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바그다드 중심부와 연결되는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책의 조속한 추진’ 등 이라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라크 총리 면담의 후속조치로 한화건설은 작년 말 이라크 정부로부터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대금 약 1억7000만 달러 규모를 수령했고, 공사 진행에 따라 1분기 중 2억달러 이상의 추가 수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건설은 이를 통해 2018년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는 “비스마야 신도시는 한국형 신도시의 수출을 통해 한국과 이라크가 국가적 동반성장을 이뤄나가는 사례”라며 “한국과 이라크, 양국 정부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라크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약 10만 가구의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누적 수주액이 총 101억달러(한화 약 11조원)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32%, 누적 수주액은 32억 5000만달러다. /이규성 기자 peace@

오로라 프로젝트, 차세대 수소전기차 활용

>> 1면 ‘현대차, 3년 내...’서 계속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스마트시티가 모두 후보로 검토될 것”이라며 “선정되면 이후 해당 도시와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협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소전기차는 대용량 전지 탑재로 안정적 전력공급, 장거리 주행 등의 장점을 갖춰 자율주행 시험차량으로 가장 적합

하다는 게 양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자율주행 4단계 수준의 기술을 탑재, 다음 달 초부터 국내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시연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도 오로라와 공동연구 과정에 활용된다.

양사는 향후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선도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핵심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양성준 기자 ysw@

‘10-1’ 달성한 상위 1% 명품기업!

(매출 10조-영업익 1조)

지난해 ‘10-1’ 달성 기업 27곳
올해韓경제 분위기도 상승세

올해 한국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매년 의례적으로 나오는 긍정적인 전망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실제 기업의 실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경제 호조와 함께 한국 경제 분위기도 좋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교역량이 지난해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뿌리는 ‘매출 10조-영업이익 1조’를 뜻하는 ‘10-1 클럽’ 국내 대기업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명품기업’이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강력한 성장엔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27개 기업 ‘10-1 클럽’ 예상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50개사 가운데 매출액이 10조원 이상인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27개로 나타났다.

가장 뛰어난 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인 15조9000억원 수준을 달성하면 지난해 매출은 240억 6075억원, 영업이익은 54조424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비 각각 19.2%, 86.1% 증가한 수치다.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질주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추정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70조 3724억원, 66조187억원이다. 전년 대비

(2017년 ‘10-1’ 클럽 기업 명단)

종목	매출액(E)	영업이익(E)
삼성전자	2,406,075	544,246
현대차	966,901	50,511
SK	911,771	59,376
POSCO	608,374	47,287
LG전자	606,856	25,764
한국전력	592,571	62,140
한화	492,626	23,041
SK이노베이션	458,106	32,831
현대모비스	361,984	23,858
SK하이닉스	300,588	135,548
LG디스플레이	275,329	27,409
CJ	269,042	14,375
LG화학	257,897	30,037
KT	231,632	15,121
한국가스공사	217,667	10,011
S-Oil	203,718	14,522
현대제철	190,804	14,591
두산	178,851	11,934
현대건설	178,351	11,157
현대로보틱스	175,212	15,011
SK텔레콤	174,478	16,090
GS	162,985	20,513
롯데케미칼	159,253	29,129
신한지주	117,351	43,213
LG	116,272	21,160
KB금융	113,851	39,685

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 이상. (단위:억원)
/자료=에프앤가이드

각각 19.2%, 86.1% 증가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해 상장사 중 가장 높은 실적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30조588억원, 영업이익은 3조283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각각 74.8%, 313.7%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도 매출액 36조2298억원, 영업이익 16조 41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도현우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 양호한 서버 D램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고대역폭메모리 HBM 등 고부가가치 D램 수요가 좋다”며 반도체 호황은 올해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10-1 클럽’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현대차(매출액 96조6901억원·영업이익 5조511억원), SK(91조1771억원·5조

9376억원), POSCO(60조8374억원·4조 9287억원), LG전자(60조6856억원·2조 5764억원), 한국전력(59조2571억원·6조 2140억원), 한화(49조2626억원·2조 3041억원), SK이노베이션(45조8106억원·3조2831억원), 현대모비스(36조 1984억원·2조3858억원), LG디스플레이(27조5329억원·2조7409억원), CJ(26조9042억원·1조4375억원), LG화학(25조7897억원·3조37억원), KT(23조 1632억원·1조5121억원), 한국가스공사(21조7667억원·1조11억원), S-Oil(20조3718억원·1조4522억원) 등이다.

◆‘10-1 클럽’ 기업의 비밀은 혁신과 투자

이들 기업의 성장 동력은 ‘미래투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2016년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1000개 기업의 투자액이 42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다. 이는 매출이 전년 대비 0.37% 감소한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늘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올해는 ‘10-1 클럽’에 속한 27개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07% 오를 것으로 전망돼 R&D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까지 R&D투자액이 12조2300억원(127억달러)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의 7%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국 글로벌 IT기업인 아마존(161억달러), 알파벳(140억달러), 인텔(127억달러) 다음에 한국기업이 이름을 올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내 기업은 LG전자(48위·31억달러), 현대차(77위·17억9000만달러), SK하이닉스(85위·16억2000만달러)가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재계 신년사 화두도 ‘혁신과 투자’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LG, SK 등 재계 수장들 모두 신년사에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올해 이들 기업의 질주가 기대되는 이유다.

한편 올해 새로 ‘10-1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두산, 현대로보틱스, 대우조선해양이다. 지난해 ‘10-1 클럽’에 속했던 기아차와 삼성화재, 효성, 대한항공 등은 입학 부진으로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